

보도	2026.9.11.(금) 조간	배포	2026.9.10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 국제협력팀 금융중심지지원팀	책임자	국 장	박정은	(02-3145-7890)
		담당자	부국장	박은혜	(02-3145-7892)
	런던사무소	책임자	팀 장	정수진	(02-3145-7901)
		담당자	소 장	김석훈	(44-20-7397-3991)
			팀 장	김규리	(44-20-7397-3993)

금감원장, 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 공동개최 해외IR 참석 및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면담

◆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'26.9.6.(일)~9.10.(목) 기간 중 런던을 방문하여 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이 함께 개최하는 해외IR*에 참석하고,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과 면담을 실시

* 금융감독원(금융중심지지원센터)은 국내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·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, 한국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를 홍보하기 위해 뉴욕·런던·싱가포르·홍콩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 "Invest K-Finance" 행사명 하에 투자설명회(IR)를 개최해 오고 있음

○ **(해외IR 참석)**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, 인사이트, 핼코 등 총 22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(IB)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·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,

- 한국의 증시 현황, 장기투자 환경 등 참석자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함으로써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

○ **(감독기구 면담)** 영국 감독당국*과의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금감원의 전사적 노력을 설명

* ①영업행위 감독청(FCA) 프리차드 부청장, ②건전성감독청(PRA) 브래딕 청장, ③재무 보고위원회(FRC) 모리아티 CEO

- 아울러, 디지털 운영리스크 대응 방안, 가상자산·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, 회계부정 대응 및 회계감리 강화 방안 등 공통 감독이슈 관련 양국 현황 및 견해를 공유

I 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 공동개최 해외IR 참석

1 행사 개요

- '26. 9. 8.(화) 금융감독원(금융중심지지원센터)은 지자체(서울시)·금융권*과 함께 런던 소재 글로벌 금융회사**의 고위급 임원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(IR)를 개최

* 신한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 등 4개사

** 7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(IB) 및 15개 자산운용사 등 총 22개사로, 내실있는 IR 행사 운영을 위해 기존의 대규모 초청 행사 대신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 중심의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진행

- 이날 행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한국 국민연금 전략 부문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,

- 금감원·국민연금·서울시·부산시의 주제발표에 이어, 참석자와의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

☞ 「INVEST K-FINANCE: LONDON IR 2026」프로그램: 【붙임】 참조

- 특히, 이번 IR은 참석자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 중심의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실시

-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를 초청하여 한국 자본시장 현황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현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편,

- 국민연금도 특별 초청하여 국민연금의 운용성과, 성장전략 및 투자원칙 등을 글로벌 금융회사와 공유

「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 공동 런던 IR」 개요

- ☑ 행사명 : INVEST K-FINANCE : LONDON IR 2026
- ☑ 일 시 : '26. 9. 8.(화) 10:00 ~ 13:00 (영국 현지시간 기준)
- ☑ 장 소 : 8 비숍스게이트 싱크탱크 오디토리움
- ☑ 진행방식 : 모두발언, 주제발표 및 질의답변 順으로 진행

가 모두발언

금융감독원장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기울여 온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과 주요 결과를 언급하며
-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금융당국의 세 가지 추진방향을 참석자들에게 강조
 - 먼저,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
 - 금융당국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
 - 저평가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주주가치가 존중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발언
 - 또한,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성장·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
 - 코스닥 시장의 진입·퇴출기준 정비와 시장 세분화를 병행하여 역동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,
 -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,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개선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힘

- 아울러,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인프라를 정비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
 - 결제주기 단축, 거래시간 연장 및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의 여러 제약을 해소하는 동시에,
 -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국인이 시간·장소 제약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자금이 한국시장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
- 마지막으로, 이러한 금융당국의 추진방향은 한국 자본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
 - 향후 글로벌 금융회사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신뢰를 당부

국민연금 전략부문장

- 김한국 국민연금 전략부문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제고된 위상과 국민연금의 글로벌 연기금으로서의 성과*를 소개하고

* '26.4월말 기준 약 1,670조원을 운용중으로 최근 3개년간 연평균 16.0%의 운용성과를 기록, 누적 운용수익 969조원을 돌파

- '26년부터 본격화된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
- 또한, 핵심 성장전략인 '체계적인 글로벌 투자 다변화'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9%를 해외자산에 배분하고 있다고 밝히며
-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어느 때보다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

나 주제발표

발표 ① |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* (금융감독원)

* [발표주제] Korea's Path to a More Resilient Market

- 금융감독원은 최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등에 따른 주가지수 상승폭 축소, 국고채·회사채 금리 상승, 달러 강세 완화 등 시장동향 및 외국인 증권 보유·투자현황을 설명하고
 -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과 변동성, 투자자의 단기매매 성향,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저하 등 한국 자본시장의 도전과제를 제시
 -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증시의 성장성과 복원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
 -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기업 육성 및 시장저변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쏠림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발표 ② | 국민연금의 투자 개요 및 성과*(국민연금)

* [발표주제] NPS: 2026 Institutional Investment Overview & Strategic Performance

- 국민연금은 기금의 성장 연혁, 운용성과 및 투자원칙을 소개
 - '88년 0.5조원 규모로 출범한 기금은 설립 이래 8.0% 연평균 수익률*을 기록하며 '26.4월말 1,670조원으로 성장한 가운데
 - * '25년 수익률: 18.8%, 최근 3년 수익률: 16.0%,
자산군별 수익률(최근 5년): 해외주식 19.2%, 국내주식 14.8%, 대체투자 11.7%
 - 수익성·안정성·지속가능성·공공성·유동성·독립성 등 6가지 요소를 핵심 투자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
 - 아울러, 기금운용위원회, 리스크관리위원회, 투자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해 투자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라고 강조

발표 ③ | 혁신과 투자의 글로벌 중심지, 서울*(서울시)

* [발표주제] Seoul, A Global Hub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

- 서울시는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거둔 주요 성과*와 투자 매력도를 소개하면서

*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(GPCI) 6위, 국제금융센터지수(GFCI) 8위 기록

- 주요 경쟁력으로 ¹⁾신속한 테스트베드 시장, ²⁾글로벌 기업 등이 연결된 탄탄한 산업 생태계 및 ³⁾우수한 인적자본 등을 제시
- 향후, 이에 만족하지 않고 'Global Top 3' 도시경쟁력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

발표 ④ | 부산, 한국 해양금융의 중심지*(부산시)

* [발표주제] Invest in Busan - Korea's Leading Maritime Financial Hub

- 부산시는 부산이 강력한 정부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해양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
- 해양수산부·한국거래소·예탁결제원 등의 부산 이전과 국제기구 (FATF·IHO 등) 유치로 해양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
- 향후, 한국 해양금융의 중심지라는 전략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 및 기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, 세제·사무공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강조

다 질의답변

- 이찬진 금융감독원장, 김한국 국민연금 전략부문장,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 및 국내 금융회사 대표단 등은 글로벌 금융회사 참석자의 현안 관련 다양한 질의에 대해 답변

— < 금융감독원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용 > —

- ☑ **(증시 변동성 관련)** 최근 금융당국이 한국의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?
 ⇨ **(답변 요지)** 레버리지·빚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밀한 증시 변동성 관리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
 - 향후 증시 수급 및 산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장기투자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
- ☑ **(환율 변동성 관련)** 원/달러 환율 변동성과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영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?
 ⇨ **(답변 요지)** 상반기중 한국의 주가 급등에 따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차익실현·리밸런싱 등 매도 물량이 증가하며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, 7월 이후에는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 등으로 환율이 하락
 - 향후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, 대외 지급능력 등을 감안하여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(over-shooting)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

- ☑ **(장기투자 환경 관련)** 금융당국은 향후 글로벌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는지?
 ⇨ **(답변 요지)**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장기·안정적 투자자 육성 등은 한국 증시의 장기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
 - 중장기적으로는 특정산업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해 정부·산업·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검토·논의할 예정

3

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- **(기대 효과)** 금융감독원(금융중심지지원센터)은 글로벌 금융중심지 런던에서 자본시장 체질개선 노력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
 ○ 한국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홍보했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

-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등 기업가치 제고,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시장접근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

- 향후 일관된 정책추진,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

□ **(향후 계획)** 금융감독원(금융중심지지원센터)은 앞으로도 지자체·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의 정책방향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

- 한국 금융산업·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

Ⅱ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면담

1 영업행위감독청(FCA*)

* Financial Conduct Authority

□ 이찬진 원장은 9.7.(월) FCA 프리차드(Sarah Pritchard) 부청장을 만나 양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, 감독방향 등에 대해 논의

- 특히, 금감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

- 아울러, 소비자보호를 위해 FCA가 운영 중인 ①판매제한·금지 명령 등 상품개입 제도, ②보이스피싱 배상 제도의 세부 기준, 적용 사례 등을 청취

□ 한편,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* 계약형 제도와 성과평가 및 가입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설계 중임을 설명

* 한국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 중으로, 도입 시 영국처럼 계약형·기금형 제도가 병존

- 향후 연금 성과평가 및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감독 경험을 지속 공유하기로 합의

2

건전성감독청(PRA*)

*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

- 9.8.(화)에는 PRA 브래딕(Katharine Braddick) 청장과 ①은행·보험 건전성 규제, ②디지털 운영리스크, ③가상자산·스테이블 코인 감독방안 등을 논의
 - 구체적으로 ①경제성장 및 금융회사 건전성 간 균형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 원칙, ②클라우드, SaaS 등 제3자 감독·검사 방향, ③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 공유
 - 아울러, 한국 금융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현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독려 중으로
 - 국내 금융회사들의 업무범위 확대 관련 인·허가 및 영란은행 파운드화 유동성 프로그램 참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

3

재무보고위원회(FRC*)

* Financial Reporting Council

- 9.9.(수)에는 FRC 리처드 모리아티(Richard Moriarty) CEO와 회계부정 대응 및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회계감리 강화방안을 논의
 - 이 원장은 상장사 심사·감리 주기 단축을 위해 전담부서 및 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감리 등의 도입을 추진 중임을 설명
 - 아울러, FRC로부터 계좌추적권을 보유한 FCA로 이첩되는 회계 부정의 유형과 기준 및 회계 심사·감리 과정에서의 활용도 등을 파악
- ※ (별첨)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개회사(국문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

시 간	내 용	대 상 자
10:00~11:30 (90분)	■ 런던 IR	
10:00~10:10 (10분)	▶ 개회	사회자
	▶ 모두발언 I	금감원장
	▶ 모두발언 II	국민연금 전략부문장
10:10~10:40 (30분)	▶ [발표1] Korea's Path to a More Resilient Market	금감원 국제업무국장
	▶ [발표2] NPS: 2026 Institutional Investment Overview & Strategic Performance	국민연금 런던사무소장
	▶ [발표3] Seoul, A Global Hub for Innovation and Investment	서울시 정무부시장
	▶ [발표4] Invest in Busan - Korea's Leading Maritime Financial Hub	부산시
10:40~11:30 (50분)	▶ 질의답변	금감원장, 국민연금, 금융회사 등
11:30~13:00 (90분)	■ Luncheon & Networking	금감원장, 국민연금, 지자체 및 국내·글로벌 금융회사 참석자 등